

## 윌리엄 슈바이커의 해석학적 도덕실재론

**이 장 형**

(천안대학교 교수)

I. 서 론

II. 포스트모던적 상황

III. 해석학적 도덕실재론의 특징

IV. 슈바이커와 정치적 현실주의와의 관련성

V. 결 론

---

• 국문초록 •

---

현대 사회는 도덕률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소위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사회는 기존의 가치 체계와 전통을 대부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포스트모더니즘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지만 윌리엄 슈바이커(William Schweiker)는 왜 도덕실재론이 포스트모던적 상황에서 위협을 받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해석학적 도덕실재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슈바이커의 해석학적 도덕 실재론이 무엇인지를 힘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규명하며, 그 사상적 특징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힘은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힘이라는 실재가 절대적이며 본질적 가치를 갖게 되는 사회가 될 때 기존의 윤리적 체계는 상실될 위험에 처하게 되므로, 도덕실재론은 여전히 여러 면에서 설득력을 갖고 있다. 슈바이커의 해석학적 도덕실재론은 도덕적 반실재론과 구성주의의 위협 앞에서 한없이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고, 특히 기독교윤리에 있어서 인간의 한계와 책임성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고 있다는 면에서 도덕 실재론의 현대적 형태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주제어: 도덕실재론, 현실주의, 사회윤리

---

## I. 서론

도덕실재론(Moral Realism)은 윤리학에 있어서 전통적인 논의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실재론 혹은 현실주의로 옮겨지는 이 이론은 여러 차원에서 설명되어지는데, 선의 실재에 대한 확신을 전제로 하는 윤리적인 전통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덕실재론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칸트에게 볼 수 있는데, 그는 마음에 가득한 두 가지 신기한 일이 있다고 하였다. 즉 칸트는 위로 별 빛이 빛나는 하늘과 마음에 새겨진 도덕률을 지적한 바 있다.<sup>1)</sup> 그런데 현대 사회는 도덕률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소위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사회는 기존의 가치 체계와 전통을 대부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포스트모더니즘과 윤리와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지만, 윌리엄 슈바이커(William Schweiker)는 왜 도덕실재론이 포스트모던적 상황에서 위협을 받는지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해석학적 도덕실재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슈바이커의 해석학적 도덕 실재론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며, 그 사상적 특징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적인 관심은 현대 사회에서 왜 도덕실재론이 약화된 측면이 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사실 도덕실재론은 교조주의적으로 수용되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 그러나 도덕실재론이 부정되는 경우 소위 ‘영속적인 것들을 상실한 시대’라는 주장이 현실화되어 매우 심각한 가치론적 충격이 생기게 된다. 이런 문제의 극복을 위해 슈바이커는 해석학적 실재론을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2)</sup> 사실 슈바이커는 기독교신학적 윤리학을 전개한 학자이긴 한데 기독교

1) Immanuel Kant, *Critique of Reason trans.* Lewis White Beck(Indianapolis Ind : Bobbs-merrill, 1956), p.166.

2) 그의 저작으로는 *Power, Value, and Conviction*(1998), *Minetic Reflections: A Study in Hermeneutics, Theology, and Ethics*(1990) 등이 있으며, 『책임윤리란 무엇인가』 『포스트모

교신앙을 절대적인 전제로 하는 대부분의 신학자들과는 달리, 철학적 차원에서 도덕실재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책임 및 통합이라는 개념을 통해 해석학적 실재론을 주장하고 있다. 특별히 한국적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고 있는 “힘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노조, 시민 단체 등이 너무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등의 표현 속에는 힘에 대한 가치 평가가 반영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힘 그 자체가 수단적 가치를 넘어 본질적 가치를 갖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sup>3)</sup> 물론 이런 식의 힘에 대한 평가와 가치 부여의 문제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며, 가치와 도덕보다도 힘이 앞선다는 인식은 시대를 막론하고 팽배해 있었다. 그러나 힘에 대한 이런 가치평가는 포스트모더니즘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더욱 이론적 설득력을 얻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선 도덕실재론과 관련된 포스트모던적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 II. 포스트모던적 상황

포스트모더니즘은 그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많이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헤센(Hassan)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란 글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모더니즘과 대비시켜서 35개의 단어로 설명한 바가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들어보면 목적(purpose)/놀이(play), 구상(design)/기회(chance), 대상(object)/과정(process), 거리(distance)/참여(participation), 경계(boundary)/간교재(intertext), 선택(selection)/조합(combination), 깊이(depth)/표면(surface), 초월(transcendence)/내재(immanence) 등이다. 도식화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사

---

던 시대의 기독교 윤리』 등이 문시영 교수의 번역으로 나와 있다.

3)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도 핵 폐기장 건설 문제와 관련하여 불안군민의 다수와 정부는 심각한 대립과 반목을 보여주고 있다.

회의 포스트모던적 성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설명이라고 생각된다.<sup>4)</sup> 그런데 슈바이커는 인간이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이 실재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의 힘이라는 실재가 가치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5)</sup> 다시 말하면 포스트모던적 사회에서는 선에 대한 고백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선의 실재를 부정하고 인간의 힘이 삶을 가장 의미 있고 목적 가득한 것으로 만들어간다는 기대가 팽배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로 여겨져 오던 선이 논의의 초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슈바이커는 최근의 위협을 반실재론(antirealism)이라고 지칭하면서, 도덕이란 인간의 발명이며 사회적 구성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슈바이커는 도덕은 사회적 구성물이란 주장은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으며 성에 관해서도 그렇다고 예를 들고 있다. 즉 반실재론은 힘을 도덕의 중심에 놓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20세기의 특징은 독선의 체험과 그에 대한 항진이라고 볼 수 있다. “독선과 폭정들에는 성차별, 인종차별 그리고 파시즘 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생각들의 배후에는 사물의 본성에 호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가부장적 체제는 남성과 여성의 본성을, 인종차별은 인종의 본성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으며, 파시즘은 유대인들을 인간 이하의 종족으로 만들어 버리고 아리안족의 승리를 선언하려는 것이었다. 이처럼 독선은 결과적으로 실재론의 옷을 입고 나타났다. 안타깝게도 이와 유사한 일이 기독교 윤리 안에도 있었다. 독일 국가사회주의 치하에서 어떤 신학자들은 억압적인 정치구조와 가정의 구조를 정당화하기 위해 창조의 질서라는 개

4) Hassen, "The Culture of Postmodernism" *Theory Culture, and Society*, V.2. 1985, p.123 - 124.

5) William Schweiker, *Power, Value and Conviction* (Ohio: The Pilgrim Press, 1998) 문시영 역, 『포스트모던시대의 기독교윤리』(서울:살림출판사, 2003), pp.23-24.

님을 이끌어내었다.”<sup>6)</sup>

그러나 슈바이커는 또한 반실재론이 갖는 도덕적 정열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사실 반실재론은 도덕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란 불가피한 사실을 인정하는 측면이 있으며, 반실재론자들은 도덕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매우 강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의 전통적인 신념들이 독선적이며 형식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재론이 설득력을 잃고 있는 경우도 많다.

### III. 해석학적 도덕실재론의 특징

슈바이커는 해석학적 실재론을 통해, 그가 도덕실재론을 강조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실재론 비판에 나타난 모호성이 문제가 되는데, 고전적인 도덕실재론은 자연과 인간의 마음에는 인간이 알아낼 수 있는 도덕적 질서가 각인되어 있다고 믿어 왔다. 그런데 이 논증을 지지하기 어렵다고 해서 도덕이란 인간의 발명이라고 보는 반실재론자들의 주장을 용인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sup>7)</sup>

인간이 도덕적 중립의 상태에서 증발되는 존재로 묘사되면, 도덕과 도덕적 행위자와 세계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실재론자들은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인간을 그의 세계에서 분리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슈바이커는 반실재론적 조망의 채택은 힘의 극대화에 종속되는 인간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인간이 힘의 추구에 이끌리는 노예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힘은 가치를 갖고 있지만, 인간과의 연관성 없이 논의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된다. 슈바이커는 행위와 행위자의 연관 관계에 대한 논의를 통합(Integration)과 통전성

---

6) 같은책, pp.21-22.

7) 같은책, p.23.

(Integrity)이란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sup>8)</sup>

다음의 표현에서 슈바이커가 추구한 도덕적 통전성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인간이 스스로를 행위자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힘과 가치를 연관짓는 것은 신과 인간이 단절된 관계가 아님을 말해준다. 이점에서 기독교적 담론은 인간이해의 길잡이로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독교적 담론을 이해함으로써 인간은 신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즉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인간은 더 높은 원천으로부터 힘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 존재에 의해 그 생명력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점을 알게 된다.”<sup>9)</sup>

슈바이커는 도덕적 다원성의 인정과 도덕적 질서의 식별 불가능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으며, 도덕 실재론자들을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질서가 실재하고 있으며 인간은 이를 식별해 낼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는 전통적 실재론이 현대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주장에 기초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설명한다.

첫째로, 도덕 실재론은 도덕질서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면 이런 주장이 공허해진다. 그런데 서양 문화는 무신론적 도덕을 표방하며, 자유 민주주의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신의 뜻이라고 말한다. 이런 연유에서 도덕 실재론은 위협받고 있다.

둘째로, 전통적 실재론은 실재의 본성과 가치를 신에게 연계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연과 가치, 존재와 당위 사이의 조화가 없어졌으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도덕적 질서에

8) William Schweiker, 문시영 역, 『책임윤리란 무엇인가』(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00) p.15. ‘한국 독자를 위한 저자의 설명’ 참조.

9) William Schweiker, *Power, Value and Conviction* (Ohio: The Pilgrim Press, 1998) 문시영 역, 『포스트모던시대의 기독교윤리』(서울:살림출판사, 2003), p.24.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도덕적 반실재론이 태동하였는데, 다른말로 도덕에 대한 허무주의적 태도 또는 윤리적 구성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들은 실재론과 달리 가치의 존재론적 지위는 실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도덕 원리가 각기 다른 문화적, 종교적 전통에서 표현되는 삶과 세상에 관한 신념 안에서만 정당하다고 한다. 즉 신념의 타당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신념 그것이 발생된 문화 안에서만 인정된다는 상대주의적 가치관을 갖고 있다.<sup>10)</sup> 즉 문화권 밖에서는 그 문화의 도덕적 판단의 진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종교에 적용해보면 기독교인의 일부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긴 하지만, 이는 다른 신념을 지닌 사람들과 공유 할 수 있는 공통의 근거를 갖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다.<sup>11)</sup>

슈바이커에 의하면 보편적 가치나 행위 규범은 존재하지 않으며, 문화는 삶의 여러 차원들을 존중하고 고양시키기 위한 행동의 규범과 규칙들을 제공하고 있기에 그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한 사회의 도덕과 규범은 여러 차원의 삶의 필요들의 가치를 어떻게 존중 함양하는가를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책임 윤리는 삶의 필요들에 대해 인간이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타문화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슈바이커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는 모든 인간에게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판의식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도덕의 진보는 문화들 사이의 비교평가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본적인 필요와 가치를 존중하고 함양하는 정책과 제도 및 삶의 방식들이 발전적으로 전개 될 때

---

10) 같은책. p. 51.

11) 이와 관련된 논의가 스탠리 하우어와스(Stanley Hauerwas)의 '내러티브 윤리'이며, 슈바이커는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p.51 참조.

비로소 구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삶의 통전성에 대한 존중과 함양은 책임윤리의 중심 주제이다.”<sup>12)</sup>

인간이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여 이를 거침없이 실행 할 수 없기에, 전통과 새로움, 윤리의 다원성과 인간의 미래적 요구 사이의 긴장 속에서 책임 윤리는 더욱 필요하다. 만일 인간들이 생명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 가치를 함양하지 않는다면 산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으며, 인간은 생명의 부여자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존중의 과제를 구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다원적 세계에 살고 있지만 도덕적 추론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인간의 기본적 필요와 고전적 전통 모두에서 추론은 시작되는 것이다.

슈바이커의 해석학적 도덕실재론은 존재론적 실재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sup>13)</sup> 첫째로, 도덕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다. 즉 도덕은 공동체와 사회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해주는 일종의 형이상학적 성찰이다. 그런데 그 목적은 실재를 설명하고 인간과 도덕 가치의 지위를 설명해 내는데 있다. 특히 슈바이커는 행위자, 힘, 가치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둘째로, 그의 도덕존재론은 도덕의 기본구조를 분석해 주고 있다. 실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아니라 실재의 기초적인 요소인 도덕적 실존이란 무엇인지를 분석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인간의 도덕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인간, 사람과 세계 사이의 상호작용, 자기 이해의 매개 및 개인과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에 따른 동일시 등을 들고 있다. 셋째로, 힘이 가치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기술 문명사회에 있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인 규범적 요소와 관련되고 있는 점이다. 슈바이커는 이런 관점

12) William Schweiker, *Power, Value and Conviction* (Ohio: The Pilgrim Press, 1998) 문시영 역, 『포스트모던시대의 기독교윤리』(서울:살림출판사, 2003), p.55 참조.

13) 이하의 논의는 같은책, p.60 이하 참조.

을 갖고 성서의 가치관과 기술문명 시대의 가치관을 비교하고 있는데, 논의의 핵심은 힘의 문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기술문명 사회에 있어서 인간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힘이 가치의 중심에 있는 사회에 있어서 인간은 힘을 행사하는 존재로서, 가치중립적이며 객체적인 우주에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말한다가 보다 가치가 존재론적 실재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 또는 공동체가 힘을 사용하는 가운데 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힘의 극대화가 삶에 있어서 가장 우월한 가치라는 주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힘이 가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힘 그 자체가 가치의 원천이라고 여겨지는 데 기술사회의 특징이 있다.

그러나 기독교의 존재론적 가치 이해는 하나님이 궁극적 실재로서 힘의 내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슈바이커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적이고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힘을 넘어서는 가치, 즉 행위의 원천이 되며 마땅히 존중하고 함양해야 할 가치를 강조해 준다. 성서는 하나님만이 가치의 원천이며 인간이 그토록 숭상하는 자신들의 힘 그 자체는 가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일깨워준다.”<sup>14)</sup> 슈바이커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서 현대 사회를 세 가지 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런 논의는 현대 사회를 매우 함축적으로 분석,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로, 현대사회는 탈-유신론적 사회라는 특징이 있다. 그는 “우리 시대의 공동체들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복지와 정의에 관한 근본 규범과 가치를 상실하였다. 기독교 신앙이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개인과 사회는 도덕의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종교적 교리에 대한 해석도 달라진다. 우리 시대는 세상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해석하지 않는 시대

---

14) 같은책, p.65.

이다”라고 말하면서 창조, 섭리 또는 심판 등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현대사회는 뉴에이지 사상을 비롯하여 인간의 영성 (spirituality)에 호소하는 종교성 짙은 사상들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슈바이커의 지적은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표현에 잘 나타난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반대의 분위기가 확대, 발전되고 있는 사상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형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등은 우리 시대에 있어서 거부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은 1966년 부활절호에서 ‘신은 죽었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1961년 바하니안(Gabriel Bahanian)은 『신의 죽음』이라는 저서를 출판했다. 바하니안은 1978년 ‘신의 죽음’이란 문화적 현상을 뜻한다고 했는데, 이전 세대의 기독교와 후기 기독교 사이에는 분명한 단절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sup>15)</sup>

1963년 로빈슨은 『신에게 솔직히』(Honest to God)이란 책을 통해, 인습적인 종교 안에 갇혀진 신관을 예리하게 지적한 바 있다. 이런 현상을 적극적인 면에서 수용하는 이들은 19-20세기에는 ‘신의 죽음’이란 주제를 통해 오히려 인간의 내면적 한계, 죽음을 통한 상실감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전형적인 ‘유신론적’ 종교가 그 영향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둘째로, 현대사회는 인간의 힘이 근본적으로 확장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슈바이커는 힘이 실재의 이해를 변경시키며 새롭고 다양한 책임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슈바이커는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의 이야기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설명해가고 있는데, 주요 성서학자들의

15) 유헤룡 ‘현대문화의 비판과 수용’ 임성빈 엮음, 『현대 문화의 한계를 넘어서』 (서울 :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 p.135.

해석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본문을 폰 라드는 이렇게 옮기고 있다.

“온 세상이 한 가지 말을 쓰고 있었다. 물론 어휘도 같았다. 사람들은 동쪽에서 올라오다가 시날 지방 한 들판에 이르러 거기 자리를 잡고는 의논하였다. 어서 벽돌을 빚어 불에 단단히 구워내자. 이리하여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쓰게 되었다. 또 사람들은 의논하였다. 어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야훼께서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이렇게 세운 도시와 탑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한 종족이라 말이 같아서 안 되겠구나. 이것은 사람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에 지나지 않겠지. 앞으로 하려고만 하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어서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쓰는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야훼께서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도시를 세우는 일을 그만 두었다. 야훼께서 온 세상의 말을 거기에서 뒤섞어 놓아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고 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다.”<sup>16)</sup>

야훼께서는 본래 한 언어와 한 어휘를 가졌던 인류를 흩으셨다. 그 원인을 성서는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인류가 문화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서 그들의 정착은 특별한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그들은 강력한 단결과 명성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거대한 도시와 탑을 건립함으로써 기념비적인 건축 사업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도시는 그들의 강력한 힘과 의지의 표징으로서 탑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이 사용한 건축 재료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들이었는데, 성서 기자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 재료들을 언급한다. 즉 사람들이 거대한 건축 작업에 사용했던 재료는 썩기 쉽고 불충분한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그리고 인간적 가능성의 영역 안에 있는 것, 즉 그들의 힘의 집약과 명성의 획득, 위대한 존재

---

16) 폰 라드, 편집부 역, 국제성서주석1(창세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1). p.159에서 인용.

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건축 동기로 삼고 있음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야곱(B. Jacob)은 밑바닥에 깔려 있는 불안의 동기를 문화의 기본적인 추진력으로 보면서 이 사건을 설명하기도 한다. 야훼 하나님은 인류의 언어를 혼란케 함으로써 그들은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인류를 흠어졌다. 그 도시의 이름인 바벨(Babel)이란 말의 뜻은 원래 ‘하나님의 문’인데 새로운 해석(휘젓다, 혼합하다 : “혼잡한 무리”)을 추가하고 있는 것이다.<sup>17)</sup>

슈바이커는 바벨탑 사건에 관해 하나님의 행위는 미래에 나타날 문명의 존속 가능성과 관련하여 인간행위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가치의 이면에는 힘이 작용하는데, 단지 힘을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힘이 초래할 미래의 결과에 대한 한계가 설정되었는가하는 점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sup>18)</sup>

셋째로, 현대사회는 마스크와 상징형식의 순환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이다. 현대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이란 힘을 위해 일하는 것인 경우가 많다. 즉 여러 형태의 우월성을 추구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되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징형식의 순환이 언급되는 것이다. 마스크에 의해 조작되는 개인과 사회에 관한 논의는 ‘대중문화’에 대한 논의와 함께 소비의 생산성과도 연결되기도 한다.<sup>19)</sup> 도덕은 사회의 담론과 상징, 이야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특히 행위자와 세계라는 상징형식에 대한 신념을 해석하는 일이 요청되는 것이다.

17) 같은책, p.160 - 167 참조.

18) William Schweiker, *Power, Value and Conviction* (Ohio: The Pilgrim Press, 1998) 문시영 역, 『포스트모던시대의 기독교윤리』(서울:살림출판사, 2003), p.73 참조.

19) 이와 관련한 논의는 원용진, 『대중문화의 패러다임』(서울: 한나래, 2002), p.33 이하를 참조하라.

#### IV. 슈바이커와 정치적 현실주의와의 관련성

슈바이커의 해석학적 도덕실재론은 ‘의미의 해석’을 강조하는 측면 등에서 정치적 현실주의와도 관련되는데, 정치적 현실주의의 이해에 있어서 그 필요성과 한계 극복을 지향하는 점에서 라인홀드 니버의 현실주의적 사회 윤리학과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최근 게놈지도가 완성되고, 여러 유전학적 정보들을 어느 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윤리적 판단 및 이용에 관한 궁극적인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에 대해서는 힘의 균형과 견제라는 과정을 통해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정보와 운용이 의료, 과학 기술진, 정부관료 계층 등 어느 한쪽에 집중되면 왜곡되고 소수의 이익을 위해 편향되게 사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따라서 이를 견제하는 장치의 마련과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정치적 현실주의는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한 순수한 도덕적 해결에 대한 한계와 인식을 함축하고 있으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갈등을 형성하는 현실에 대한 관심을 기초로 하고 있다.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서의 모든 요소들을 취해서 윤리적 문제를 설명하려는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은 가치들의 뒤에 숨어 있는 이익과 두려움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즉 자기 이익만이 유일한 현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면에서 정치적 현실주의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니버는 경직된 정치적 현실주의자들과 구별되고 있다. 즉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은 정치에 대해 현실적이 되기 위해서 가치, 선, 규범 등의 현실성을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도덕과 관련한 개념 등은 지극히 추상적인 것으로 정치적인 면에서 힘과 이해 관계 등을 설명해내는 데 있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정치적 이념은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긴 간에 사용해야 하는 힘의 투쟁

에 있어서 회피할 수 없는 도구이다. 그런 조명이 니버를 그 시대의 위대한 정치철학으로 자리 매김 하게 하며 아마 칼 하임(Karl Heim) 이래 가장 창조적인 정치철학자로 평가하게 하는 것이다.<sup>20)</sup>

그런데 정치적 현실주의와 도덕 실재론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인가? 도덕적 이상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인 결과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그들이 ‘예수의 순수한 윤리’라고 간주하는 것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감상적 헌신은 그것의 사회적 영향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도 현실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비현실적인 것은 개인적인 역사와 인생의 유한성에 대항해야 하고, 다양한 요구들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도덕적 이상들은 강력하게 지속되며 활동적으로 실행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현실적 효과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그런 원인들에 대항하는 종교적 헌신이란 충분히 현실적이면서도 그 최종 목표에는 달성될 수 없다는 면에서 비현실적이다.

도덕실재론자들은 도덕적 명제가 참인가하는 것은 공동체나 화자의 이념과 독립해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도덕적 주장은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는 경우에도 진리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도덕실재론자들의 논변에 의하면, 만일 도덕적 주장의 진위가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조건 등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빈곤의 상황은 정의에 관한 도덕적 믿음이나 행위에 관한 개인의 책임성과 상관없이 사실이다. 정치적 현실주의와 도덕실재론의 중요한 차이점은 정치적 현실주의는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도덕실재론은 이런 믿음과는 독립되어 있는 ‘도덕적 진리’와 관련되고 있다. 많은 현대적 도덕 실재론의 입장은 진리 이론 중 실용주

20) Hans J. Morgenthau, “The Influence of Reinhold Niebuhr in American Political Life and Thought” in Harold R. Landon, ed., *Reinhold Niebuhr: A Prophetic Voice in Our Time* (Greenwich, Conn Press, 1962), p.109 참조.

의와 정합론을 채택하고 있고, 참된 문장과 현실 사이에 단순한 일치에 의존하는 이론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로빈은 현실주의와 실용주의적 방법이 여러 면에서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1)</sup>

## V. 결론

현대사회는 자본주의적 정신과 기술 문명이 가져온 윤리적 황폐화에 직면해있다. 여러 면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생명 경시의 사상이다. 환경이란 용어대신 생태계란 표현이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환경오염과 자연파괴, 자원의 고갈 등은 결국 생명 자체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스 요나스는 ‘책임윤리’를 논하면서 현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포스트모던적 상황 속에서 윤리적 가치의 존재가 부정되는 경향 및 사회 체계 속에서 수단적인 가치인 힘이 본질적 가치를 갖게 되는 상황을 경계하는 윌리엄 슈바이커의 도덕실재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여러 형태의 도덕실재론을 들 수 있지만, 정치적 현실주의의 형태로 도덕실재론을 소화하여 낸 사회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버의 현실주의를 간단히 비교하면서 고찰해 보기도 하였다.

우리가 처한 기술문명사회의 위험과 충격은 존재론적인 면에서 보다 훨씬 더 큰 가치론적 측면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슈바이커의 도덕실재론은 행위자와 행위, 세계의 분리를 지양하며, 통전적인 윤리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해석학적 도덕실재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라인홀드 니버의 현실주의는 철저한 종교적 인간이해와 관련 시키는 반면에<sup>22)</sup> 슈바이커는 행위와 행위자의 통합이라는 측면을 강조하

21) Robin W. Lovin, *Reinhold Niebuhr And Christian Realism*(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p. 14.

22) 니버는 인간의 상호애가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계시된

고 있다. 그러나 양자는 힘의 요소를 중시하는 정치적 현실주의에 기대고 있으면서도, 그 한계를 철저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면에서 공통점도 갖고 있다. 이는 기독교의 유신론적인 신념 체계를 사상의 기저에 갖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힘은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힘이라는 실재가 절대적이며 본질적 가치를 갖게 되는 사회가 될 때 기존의 윤리적 체계는 상실될 위험에 처하게 되므로, 그 논변의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도덕실재론은 여전히 여러 면에서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슈바이커의 해석학적 도덕실재론은 도덕적 반실재론과 구성주의의 위협 앞에서 한없이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고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면에서 도덕적 실재론의 현대적 형태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

완전한 사랑인 '아가페'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 규범은 인간의 삶 속에서 완전히 실현될 수는 없지만, 불가능한 가능성(impossible possibility)으로서 분명한 윤리적 준거가 되고 있다.

## 참고문헌

- Immanuel Kant, trans. Lewis White Beck, *Critique of Reason*, Indianapolis, Bobbs-merrill, 1956
- Robin W. Lovin, *Reinhold Niebuhr And Christian Real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William Schweiker, *Power, Value and Conviction*, Ohio, The Pilgrim Press, 1998
- Von Rad, 편집부 역, 국제성서주석1(창세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1
- William Schweiker 문시영 역, 『포스트모던시대의 기독교윤리』, 서울, 살림출판사, 2003
- William Schweiker, 문시영 역, 『책임윤리란 무엇인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임성빈 엮음, 『현대 문화의 한계를 넘어서』,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 원용진,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서울, 한나래, 2002

K C I

## ABSTRACT

### The Hermeneutical Moral Realism of William Schweiker

Lee, Jang Hyeong  
(Cheonan University)

Grave moral challenges face contemporary society. The societies of postmodernism reject the value system and traditional moral conceptions. There are various researches of relationships between postmodernism and ethics. But W. Schweiker explains the reasons and causes of moral crisis creatively. He suggests the hermeneutical moral realism. To speak of hermeneutical realism is to acknowledge the inescapable fact of human meaning-making in an account of morals. This means that we should see ourselves as travelers and interpreters of diverse moral worlds rather than trying to catch the human spirit through the spheres of one culture. It means that the continuities in human life and among cultures are intertwined with dimensions of existence that foster and preserve diversity.